

‘2019 광양 스마트 드론산업대전’ 성료

시설물 점검 특화 드론산업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 국내 첫 드론 제조·서비스 기업-수요기관 비즈니스 매칭

‘2019 광양 스마트 드론산업대전’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성황리에 열렸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드론산업대전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시회, 시연회,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산업분야와 드론 레이싱·축구 경진대회, 드론낚시, 드론 풍선 터트리기 체험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드론 제조·서비스 공급기업 40여 곳과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70여 수요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조달청, 중소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실증시연 중심으로 기획됐다.

전시회에서는 산업시설물 안전점검 특화 드론 및 농업용 드론, 수상구조 드론, 헬리콥터, 유인드론 등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이 눈길을 끌었다. 레이저 스캐너, 열화상 카메라 등 드론 탑재 임무장비와 소프트웨어도 함께 전시돼 호응을 얻었다.

실증시연회에서는 드론 화재진압과 연막소독, 인명구조 시연에 이어 광학·열화상 카메라 활용 원거리 시설물 안전진단, 5G 기반의 통합관제 플랫폼 등 드

론 신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수요기관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점검 기술에 대해 드론기업이 수요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

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데 시장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드론산업 대전을 통해 우리나라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철강과 항만의 도시인 광양시가 드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국토부 지정 드론심사시험장과 드론시범공역 유치에 이어 올해 드론산업대전을 계기로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문과 대규모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드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광양=허선식기자



‘2019 광양 스마트 드론산업대전’이 광양시 주최,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16-17일 이틀간 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광양시제공



장성군, SNS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장성군이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2019년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장성군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게시하며 이용자와 활발한 소통을 늘려온 점과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 SNS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공식 SNS를 개설해 군민을 비롯한 SNS 이용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또 SNS를 통해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군정 소식을 제공하고 축제와 관광지, 맛집, 농특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전

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흥미를 끄는 이벤트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 100만명이 넘는 방문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폐막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역시 SNS를 통한 군의 사전홍보와 실시간 축제분위기 전달, 다양한 이벤트 진행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SNS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인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장성군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홍보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장흥한우삼합, 산림문화박람회서 ‘인기’

장흥한우삼합이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축산사업소는 산림문화박람회 기간 동안 통합홍보관에 장흥한우삼합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장흥한우, 표고버섯, 키조개를 이용한 ‘장흥한우삼합’을 전시하고 장흥한우를 이용한 레시피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한우삼합을 시작하는 시간에는 긴 줄이 늘어섬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청정지역 장흥에서 자란 장흥한우는

필수지방산 함량이 높고 육질이 좋아 씹는 맛이 훌륭하다. 표고버섯의 주산지로 지정된 장흥은 전국 물량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장흥키조개는 패주의 크기가 크며 맛이 부드럽고 향긋해 살아 연하기로 유명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이 장흥군의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의 소비촉진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막을 올린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장흥=노형록기자

‘행복도시 담양’ 구현 ‘2020 시책발굴 보고회’

군정 현안 성공적 마무리 위한 시책 260여건 논의

담양군이 민선 7기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0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규시책 발굴보다는 ‘소득 4만달러 인구 7만 명의 자립형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초점

을 맞추고 사업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민선 3기 출범 이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정의 혁신을 위해 제안했던 다양한 정책 중 추진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실·과·소 전체의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방행정의 취약분야인 통계 중심의 경영행정을 군정 전반에 도입해 통계를 통한 ‘정책의 기획-집행-평가’로 정책 운영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15일 이틀 간 진행된 ‘2020 시책발굴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핵심 업무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 분석, 실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신규 시책 발굴과

기존 시책의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군은 특히 민선 7기 군정의 목표인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의 군정가치를 군민이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과·소 별 핵심 정책방향 설정에 역량을 집중,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 부서가 담양의 미래성장 기반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진단과 혁신으로 군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영광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건강 교실 마무리

영광군보건소는 최근 백수하사보건진료소를 마지막으로 4개 보건진료소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 수료식을 마무리했다.

심뇌혈관질환 건강지킴이 교실은 전남

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3월부터 보건진료소 4개소(백수

하사, 백수 누산, 흥농 가곡, 묘량 삼호)에서 매주 2회 이상 운영해 왔다.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성분 측정, 근력강화 운동, CPR 교육, 웃음치료, 금연·절주교육, 치매예방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생 김모 씨는 “건강지킴이 교실

에서 운동과 건강관리 방법도 배우고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의료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